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 어 교과서에 나타난 Over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미 숙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영 어 교과서에 나타난 Over의 인지의미론적 분석

지도교수 김은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김 미 숙

김미숙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27일



주 심 영어교육학박사 박 종 원 (인)

위 원 문 학 박 사 정 해 룡 (인)

위 원 언 어 학 박 사 김 은 일 (인)

목 차

영문 초록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 방법	3
2. 이론적 배경	4
2.1 동음적 접근법	4
2.2 다의성 접근법	5
2.2.1 다이어	5
2.2.2 하위상술	7
2.2.3 다의성의 오류	11
2.3 원칙적 다의성 모형	13
2.3.1 원형 장면	13
2.3.2 개별 의미	16
2.3.3 일차적 의미	17
2.3.4 온라인 의미구성: 추론 전략	19
2.3.5 화용적 강화	21
3. Over의 의미	23
3.1 Over의 의미망	23
3.2 Over의 원형 의미	24
3.3 Over의 개별 의미	29
3.3.1 A-B-C 궤도 다발	29
3.3.1.1 건너편 의미	31
3.3.1.2 상위-초월(초과 I) 의미	33
3.3.1.3 완료 의미	35
3.3.1.4 전이 의미	36

3.3.1.5 시간 의미	37
3.3.2 덮기	39
3.3.3 상위-근접	40
3.3.3.1 검사 의미	40
3.3.3.2 주의초점 의미	42
3.3.4 위 다발	43
3.3.4.1 더 많음 의미	43
3.3.4.2 과도-상위(초과 Ⅱ) 의미	44
3.3.4.3 통제 의미	46
3.3.4.4 선호 의미	48
3.3.5 재귀성	49
3.3.5.1 재귀 의미	49
3.3.5.2 반복 의미	50
4. 교과서에 나타난 Over의 의미 분석	52
4.1 중/고 교과서 개별 의미 분포	52
4.2 중등교과서 출판사별 비교	55
4.3 고등교과서 출판사별 비교	59
5. 결론	66
참고문헌	68

그 립 목 차

[그림 1] The cat jumped over the wall에 대한 가능한 궤도	7
[그림 2] jump가 잠재적으로 부호화하는 궤도 경로	8
[그림 3] over가 잠재적으로 부호화하는 궤도 경로	8
[그림 4] 관계 in을 포함하는 공간적 장면의 원형장면	14
[그림 5] over의 의미망	24
[그림 6] over의 원형 장면	25
[그림 7] A-B-C 궤도 다발	30
[그림 8] 건너편 의미	32
[그림 9] 상위-초월 의미(초과 I 의미)	35
[그림 10] 완료 의미	36
[그림 11] 전이 의미	37
[그림 12] 시간 의미	39
[그림 13] 덮기 의미	40
[그림 14] 검사 의미	42
[그림 15] 주의초점 의미	43
[그림 16] 위 다발	43
[그림 17] 더 많음 의미	44
[그림 18] 과도-상위 의미(초과 II 의미)	46
[그림 19] 통제 의미	47
[그림 20] 선호 의미	49
[그림 21] 재귀 의미	50
[그림 22] 반복 의미	51

표 목 차

[표 1] 중/고 교과서 개별 의미 분포	53
[표 2] 중등교과서 출판사별 비교	56
[표 3] 고등교과서 출판사별 비교	61



A Cognitive Analysis of OVER in Middle and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Kim, Mi Soo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e and extended meanings of preposition “over” according to cognitive analysis and to usages of preposition “over” in the English textbooks based on Tyler & Evans’s(2003) study, which accounts for the polysemy of “over” in a principled, systematic manner within the framework of Cognitive Linguistics.

I have examined three previous studies, and proposed their problems. The homonymy approach has a number of problems when we attempt to account for words such as “over.” The underspecified approach runs into difficulties also, even in accounting for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most straightforward of sentences such as *the cat jumped over the wall*. And it will be argued that Lakoff’s(1987) model vastly inflated the number of proposed distinct meanings associated with spatial particles such as “over.” Therefore, the underspecified approach and Lakoff’s analysis fail to adequately account for the largely non-linguistic nature of prepositions, termed conceptual inte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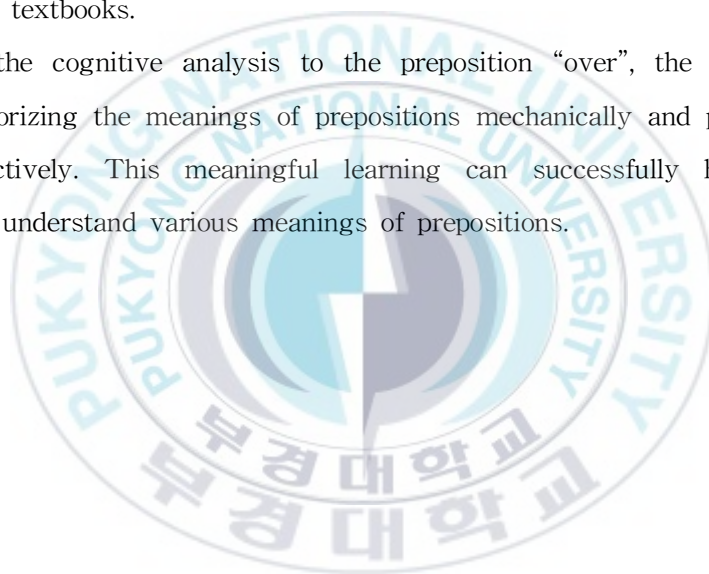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e principled polysemy model that accounts for distinct, multiple senses by a highly limited set of pragmatic and cognitive

principles was introduced and a detailed analysis of “over” based on the principle polysemy model was also provided.

The polysemy network for “over” contains 15 distinct senses, including the proto-scene, and other additional meanings derive from conceptual integration constrained by the cognitive principles.

I analyse 18 different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that have utilized the principled polysemy model in explaining the preposition “over” and how the additional meanings in the cognitive network were associated with prepositions used in the textbooks.

Through the cognitive analysis to the preposition “over”, the learners can avoid memorizing the meanings of prepositions mechanically and participate in learning actively. This meaningful learning can successfully help English learners to understand various meanings of prepositions.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영어를 제2외국어로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전치사이고 실제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많이 틀리는 것도 전치사이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생각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전치사는 우리말의 문법 구조에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하고 각 전치사 하나하나마다 용법도 대단히 많아서 전치사 습득 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

전치사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전통문법에서는 전치사가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분류하여 놓았다. 이는 의미 분류적 기술에 불과하여 학습자의 노력을 덜어 줄 수 없었다. 구조주의 문법에서는 전치사를 독자적인 의미는 없고 내용어의 의미에 의존하는 기능어로 보았다. 그래서 각종 상황에 따른 내용어의 의미를 알아야만 전치사의 의미를 알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부담은 여전했다. 변형 문법에서는 전치사를 문장 구조의 빈틈을 채워 주는 요소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전치사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전통 문법에서 변형 문법에 이르기까지 전치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80년대 초반 Langacker(1980)는 인지문법¹⁾의 관점에서 전치사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고, 이를 바탕으로 Brugman(1981),

1)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은 언어를 인지의 통합된 국면으로 간주하며, 문법을 고유하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인지문법은 언어 의미론에 대한 개념주의적 설명을 전제하는데, 그것은 동일한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고유하게 인정한다.

이기동(1982, 1984, 1989, 1998), Lakoff(1987), Dewell(1994)등이 전치사 over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연구로 영어 학습자는 보다 쉽게 전치사 over의 의미를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over의 형태와 관련된 문장에서 다른 의미들 사이의 체계성을 제공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즉, over의 원형적 의미와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들 사이의 상대적인 개념적 거리를 명시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다양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전치사 over의 의미를 Tyler & Evans(2003)의 원칙적 다의성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려고 한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over의 원형 의미를 찾아내고, 그 원형 의미를 포함해서 열다섯 개의 개별 의미로 나누어 over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전치사 over의 원형 의미를 찾아내고, 그 원형 의미와 관련하여 파생된 전치사의 의미를 서로 관련 지어 학습하게 되면, 유의미 학습이 이루어지고, 무조건 암기식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지 과정을 통한 의미의 확장을 보여줌으로써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기본 지침서가 되는 교과서를 분석하여, 실제 교과서에서 전치사 over의 의미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 관계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Tyler & Evans(2003)의 원칙적 다의성 모형을 제시하여 다의성 오류를 해결하고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 입각해서 개별 의미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형을 바탕으로 over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over의 원형장면(일차적 의미에 대한 심적 표상)의 형상적 양상(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지만 탄도체가 지표와 잠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것)과 기능적 양상(탄도체와 지표가 서로의 영향권 내에 있다는 것)으로부터 over에 대한 의미망 조직속에 있는 여러 의미들을 원형 장면을 포함해서 열다섯 개의 개별 의미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에 쓰인 전치사 over에 대한 의미 유형 분류를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 근거하여 개별 의미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 후, 각 교과서에서 쓰인 전치사 over의 예문을 분석하여, 각 개별 의미들이 어떤 빈도수로 쓰였으며, 각 의미들이 골고루 잘 쓰였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분석에 사용된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사용되는 두산(김), 지학사 및 천재 3종의 중학교 1, 2, 3 교과서와 고등학교 공통 영어, 영어 I, II 교과서 총 18권이며, 결과의 일관성을 위해서 선택된 교과서의 본문(reading) 부분만 발췌하여 전치사 over의 쓰임을 분석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동음성 접근법(homonymy)

Brinton(2000)²⁾은 동음성(homonymy)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두 단어가 동일하게 발음되고 표기되지만 의미는 다르다.”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음성은 형태가 두 개이고 각 형태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경우인데, 그 의미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형태 bank가 ‘강둑’과 ‘어떤 유형의 재정 기관’ 둘 다와 자의적으로 연상되는 것으로 우리가 배운 것과 비슷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가 over에 대해 자기 머릿속 사전에서 표상하는 개별적인 몇 가지 형태-의미 쌍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각각의 형태-의미 어휘 수록어들이 동음적이라고, 즉 어휘 수록어들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동음적 접근법이다.

하지만, 동음성 접근법은 over와 같은 낱말을 설명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한계에 부딪친다.

첫째, 동음성 접근법은 협소한 공시적 입장을 취한다. 즉, 언어 변화를 동기화되고 원칙적인 방식으로 진화하는 체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음성 접근법은 의미 확장이 자의적이라고 보며, 그것은 언어 변화가 동기화 없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체계적 언어 진화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동음성 접근법은 하나의 언어 형태와 연상되는 개별 의미들 사이의 체계적인 관계를 무시한다.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치사는 여러 의미들 가

2) Brinton(2000): "two words sound and are written the same but are different in meaning."

지고 있으며 그 의미들은 규칙적인 패턴을 가진다. 동음식 접근법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별 의미들 사이의 체계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즉, 동음식 접근법은 왜 화자가 완전히 새로운 음운적 연속체를 만들어내지 않고 특정한 기존 형태를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의 어휘적 형태와 연상되는 개별 의미들을 모형화 하기 위해 다의성 입장을 선택하고 있다. 다의성 접근법은 over와 같은 전치사와 연상되는 의미들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고 제안한다.

2.2 다의성 접근법

2.2.1 다의어(polysemy)

영어에서 빈도수가 높은 기본 어휘에 속하는 낱말은 거의 모두 여러 가지의 뜻을 갖는다. 대표적인 예로 전치사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전치사는 모두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어를 다의어라고 한다. 영어에서는 이런 현상이 아주 보편적이며 특히 전치사는 거의 모두 다의어로 보인다.

Tyler & Evans(2003)는 다의어 ‘over’의 의미구조를 규명함에 있어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의 입장을 취한다. 이 입장에서는 단어를 범주로, 개별 의미들을 그 범주의 구성원으로 본다. 따라서 그 개별 의미들 사이에 같은 범주로 묶여질 수 있는 공통성과 연계성이 있으면 이 공통성과 연계성이 그 범주의 특성 자질이라 본다. 이러한 특성 자질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개별 의미가 그 범주의 원형(prototype)이라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 a. She climbed *over* the tree.

b. She is *over* me.

(1a)에서는 *over*가 어떤 장애물로 여겨지는 나무를 공간적으로 뛰어 넘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는데 반하여 (1b)는 *over*의 의미가 기본의미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확대, 혹은 은유를 통하여 그녀가 나와서 관계의 청산에서 오는 아픔, 시련등의 정신적인 장애를 뛰어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어휘 항목이 뜻의 자연스러운 범주를 형성할 경우, 자연스런 범주화의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정보와 결부하여 생각할 수 있어서 단어가 갖는 어떤 뜻이 다른 뜻보다도 대표적인 경우를 취하게 된다. 단어의 의미는 여러 방법에 의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은유라는 개념이다. Lakoff & Johnson(1980)에 따르면 은유(metaphor)는 어떤 영역의 ICM(이상 인지 모델: Idealized Cognitive Model)에서 다른 영역의 ICM으로의 경험기반에 따른 사상(mappi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두 영역의 ICM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다. 기점 영역 안의 단어의 뜻이 기본 의미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점 영역 안의 ICM에 있는 요소를 지시하는 단어가 목표 영역 안의 ICM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대응하는 요소를 지시하는 일은 자주 있다. 따라서 위의 예문에서 본 *over*의 기점 영역은 공간적 영역이고, 목표 영역은 (1b)의 예문과 같은 경우라 볼 수 있다.

Brugman(1981)은 *over*가 주로 공간 관계를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언어사용자는 이 세상의 대상물들이 서로에게 관련을 맺는데 일반적인 지식을 적용한다고 한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일반적 지식이란 언어 사용자 자신의 그러한 대상에 대한 경험이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현상세계를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는 상징을 사용하면 더 현상들을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그려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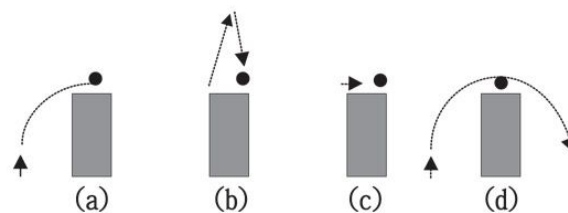
는 것 외에도 그것에 상응하는 정신적인 혹은 추상적인 용법으로까지 확대하여 도식화 할 수 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려낼 수 있는 전치사의 의미론적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데 공간적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공간개념은 언어사용자가 전치사 over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근본적인 바탕이 되고 이 전치사의 추상적인 의미확대의 적용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2.2.2 하위상술(underspecification)

하위상술이란 어휘 수록어가 풍부하게 상술 될 수 있다는 가정³⁾을 말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구성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복합적인 해석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휘 수록어는 상당히 복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Tyler & Evans(2003)에서는 하위상술 분석이 가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의 문장을 고려해보자.

(2) The cat jumped over the w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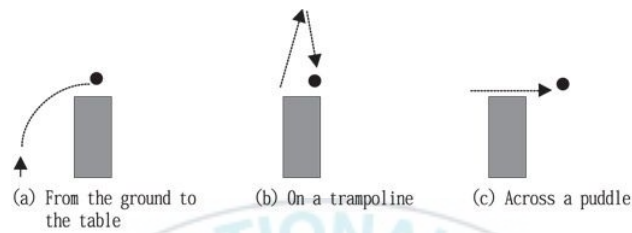
(2)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The cat jumped over the wall에 대한 가능한 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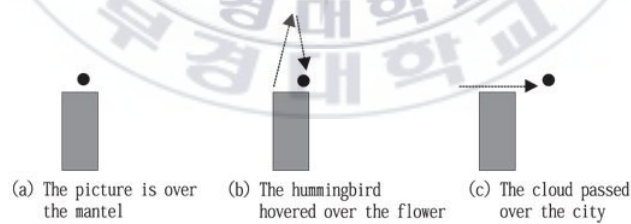
3) 의미가 본질적으로 개념적이지 아니라 언어적이라는 가정은 심지어 가장 간단한 문장의 정확한 해석을 설명하는 데에도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힌다.

[그림 1]의 도식 중에서 (2)을 가장 잘 표상하고 있는 도식은 (d)이며 그것은 (2)의 관습적인 해석⁴⁾을 잘 도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d)를 구성하는 방법을 모형화해 보면 문제점이 나타난다. 아래의 도식을 보자.



[그림 2] jump가 잠재적으로 부호화하는 궤도 경로

[그림 2]는 jump가 기술하는 행동을 다양한 궤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는 [그림 1]의 (a), (b)와 동일한 도식을 가진 것도 있다. 다음 도식을 보자.



[그림 3] over가 잠재적으로 부호화하는 궤도 경로

[그림 3]은 over가 탄도체(the picture, the hummingbird, the cloud)와 지표(the mantel, the flower, the city)⁵⁾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는 몇 가지 공

4) 고양이가 벽의 한쪽 끝에서 뛰어오르기를 시작하고 호 모양의 궤도를 이동해서 벽의 건너편에 도착한다는 것.

간적 형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에서도 [그림 1]의 (b)와 동일한 도식을 가진 것이 있다.

따라서 명백하게 중의적인 어휘 항목이 들어 있는 (2)의 문장이 중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2)의 어떤 요소도 적절한 해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Jackendoff의 단순 합성적(simple compositional) 접근법⁶⁾에 따라서 [그림 1]의 (d)에서 도형화된 해석을 얻기 위해 (2)의 어휘 수록어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살펴보자.

첫째, *over*를 고려해 보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이전 연구는 *over*가 (2)에서 표상되는 것과 같이 뒤따라오는 궤도를 부호화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a. Jane marched *up* the stairs.
- b. Jane marched *down* the stairs.

(3)와 같이 전치사를 바꾸면 궤도에 대한 변화가 초래한다. 따라서 전치사가 제공하는 정보는 궤도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에 대한 설명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 (4) a. The picture is *over* the mantel.
- b. The hummingbird hovered *over* the flower.
- c. The plane flew *over* the city.

5) 탄도체(TR: trajecter)는 어떤 관계적 구조에 있는 전경 혹은 가장 현저한 요소를 대표하는 반면 지표(LM: landmark)는 관계 속에 있는 다른 실체를 지시한다.

6) Jackendoff(1997: 41): “no aspects of a sentence’s interpretation can arise from outside of the sentence itself.” (문장 해석의 어떠한 양상도 문장 그 자체 외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d. Sam crawled *over* the wall.

(4a)에서 *over*는 탄도체가 지표보다 더 높은 곳에 정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공간적 관계를 부호화할 수 있고, (4b)에서는 탄도체가 계속 움직이는 동안 지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4c)에서는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고 그것을 가로지르는 궤도 위에서 이동한다. (4d)에서는 탄도체가 지표 사이에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표가 궤도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2)의 경우에서와 같이 탄도체가 지표 사이에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는 궤도의 모양을 상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힌다.

둘째, 동사 *jump*를 고려해보자. 궤도 모양에 관한 정보가 동사에 있다고 본다면 각 동사와 연상되는 어휘 목록이나 의미의 수가 상당히 확장되어 잉여성이 발생하게 된다.

셋째, 명사 *cat*를 고려해보자. 여러 가지 명사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한 뛰어오르기에 관한 정보를 상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휘 수록어에 포함되는 정보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2)의 문장에 나타나 있지 않은 고양이의 목표를 모르고서는 [그림 1]의 (b)와 같은 도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jump*와 *over* 사이의 자질 일치(feature matching)도 [그림 2] (b) 도형의 *jump*와 [그림 3] (b)의 *over* 사이의 일치를 배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하위상술 분석은 (2)과 같이 간단해 보이는 문장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2.2.3 다의성의 오류(ploysemy fallacy)

Sandra(1998)는 어떤 다의성 모형은 방법론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가 말하는 다의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의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은 원어민 화자의 심적 표상에 비해 특정한 형태와 연상되는 개별 의미의 수를 과장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학자가 매우 정교한 특정 단어의 의미망 조직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 언어학자가 제시한 의미망 조직이 원어민 화자가 그 특정 단어의 의미를 표상하는 방법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정 단어의 개별 의미의 수를 과장했던 이유는 언어적 표상만 너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정한 해석이 발생하는 문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Lakoff(1987)은 over의 원형 의미가 ‘상위-횡단’이라고 간주하는데, Lakoff은 이 의미에는 “The plane flew over the city”와 같은 문장으로 표상되듯이 탄도체가 이동하는 경로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첫째로 원형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의 직관에 기초해서 over의 원형 의미가 상위-횡단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다음으로 횡단의 개념이 문제가 된다. 횡단이라는 개념은 이동의 개념을 환기시키고 이동의 개념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이 제시되는 경로의 개념을 환기시킨다. 그러나 이동과 경로라는 개념은 과정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동사의 속성이다. 전치사는 두 사물 사이의 공간적 관계를 표상하기 때문에 이동이나 경로의 개념은 환기시킬 수 없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Lakoff은 over의 의미에 이동과 경로의 개념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오류를 범한다.

7) 다른 전치사에 적용되면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이지만, 원칙적 다의성 모형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필자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다.

Lakoff가 범한 다의성 오류를 다음 문장을 통해 살펴보자.

- (5) a. The helicopter hovered *over* the ocean.
b. The hummingbird hovered *over* the flower.

Lakoff은 *over*가 (5a)에서는 탄도체(the helicopter)와 확장적 지표(the ocean)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고, (5b)에서는 탄도체(the hummingbird)와 비확장적 지표(the flower)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Lakoff은 지표의 차원성의 차이가 *over*와 연상되는 의미망 조직에서 개별 의미로 표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수많은 개별 의미가 의미망 조직 내에서 상술된다. 이러한 의미망 조직에서 *over*가 지시하는 공간적 관계에 의해 중재될 수 있는 다양한 탄도체와 지표의 많은 측량적 특성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표가 확장적인지 혹은 수직적인지와 같은 탄도체와 지표의 측량적 특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상대적 관계가 *over*의 용법들 사이에서 유사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견해를 본다면, *over*와 같은 전치사는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측량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를 지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5a), (5b)와 같은 문장에서 탄도체-지표 형상이 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over*가 이 두 문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5a)와 (5b) 모두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공간적 형상은 그 둘의 측량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다.

접촉 여부의 관점에서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정확한 측량적 관계를 상술할 때도 유사한 주장을 할 수 있다. 다음 문장을 고려해 보자.

(6) Sam went *over* the wall.

(6)에서는 뛰어오르거나 기어서 Sam이 벽 위로 지나가는 정확한 방식이 상술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접촉 여부가 상술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접촉 여부에 대해 상술하지 않고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다는 공간적 형상만을 표상하는 *over*에 대한 표상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처럼 Lakoff은 탄도체와 지표의 차원성 및 탄도체와 지표의 접촉 여부와 같은 측량적 자질을 제시해서 *over*와 연상되는 의미의 수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3 원칙적 다의성 모형

본 장에서는 개별 의미와 원형 장면의 문맥적 용법을 결정하는 명시적 기준을 제시하여 다의성의 오류 및 원형 장면을 결정하는 직관적 접근법을 피하며, 개별 의미를 발생시키는 인지 과정 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Tyler & Evans(2003)의 원칙적 다의성 모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원칙적 다의성 모형의 기본 가정인 원형 장면, 개별 의미, 일차적 의미, 온라인 의미, 화용적 강화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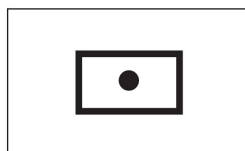
2.3.1 원형 장면(proto-scene)

Tyler & Evans(2003)는 공간적 장면을 인간의 개념적 처리 과정에 의해 중재되는 반복적인 실재 세계의 공간-물리적 형상에 대한 추상적 표상으로 보고, 공간적 장면은 형상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형상적 요소에는 탄도체, 지표, 탄도체와 지표를 지시하는 개

념적인 공간적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The baby is in the playpen”으로 기술되는 공간적 장면에서 탄도체(the baby)와 지표(the playpen)를 중재하는 개념적인 공간적 관계는 전치사 in에 의해 언어적으로 환기되고 있다. 기능적 요소는 특정한 공간적 형상 속에 있는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반영한다. 예컨대, 전치사 in이 기술하는 공간적 관계는 탄도체가 지표에 둘러싸여 있는 관계를 지시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공간적 장면과 연상되는 지표는 본질적으로 삼차원이고, 탄도체는 지표의 한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다. 즉, 지표는 탄도체가 겪는 경험의 본질과 범위를 제한해서, 기능적 요소는 ‘포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적 장면은 원래 기능적이다.

Tyler & Evans(2003)는 의미망 조직에서의 일차적인 의미와 통사적으로 일차적인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원형 장면’(proto-sce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원형이라는 용어는 개념적, 심적 관계의 이상화된 양상을 포착하고, 장면이란 용어는 공간적 장면에 대한 공간 물리적 인식 및 지각적 인식을 강조한다. 이들은 원형 장면을 도식으로 나타내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7)로 기술되는 공간적 장면의 원형 장면을 [그림 4]으로 나타내고 있다.

(7) The puppy is *in* the box.



[그림 4] 관계 in을 포함하는 공간적 장면의 원형장면

탄도체(the puppy)는 검은 색 원으로 되어 있고 지표(the box)는 검은색 선으로 되어 있다. 전치사 in에 의해 언어로 부호화되는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개념적인 공간적 관계는 원과 검은색 선 사이의 도형적 형상에 의해 원형 장면으로 표상된다. 이러한 형상의 기능적 요소는 ‘포함’을 반영한다. 이 때, 공간적 장면을 해석하기 위한 관찰지점은 공간적 장면 외부에 있다. Tyler & Evans(2003)는 특정한 공간적 장면이 관찰되는 방식이 대체로 공간적 장면의 기능적 본질을 결정한다고 보고, 다음 네 가지의 공간적 장면을 관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공간적 장면은 특정한 관찰지점으로부터 개념화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탄도체-지표 형상이 서로 다른 많은 관찰지점으로부터 해석될 수 있다.

둘째, 공간적 장면의 특정 부분은 윤곽부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장 “The cat is sitting in the middle of the circle.”에서 탄도체(the cat)은 지표(the circle)에 둘러싸이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여기에서 지표는 그릇으로 개념화되고, 지표가 둘러싸는 공간이 윤곽부여되고 있다.

셋째, 동일한 장면이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큰 식탁보가 식탁과 관계하여 위치해서 식탁보가 식탁의 윗면을 덮고 있는 공간적 장면에서, 그 장면은 식탁보와 식탁 사이의 접촉에 초점을 둌으로써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The tablecloth is on the table”로 부호화될 것이다. 또한 식탁보와 식탁 사이의 관계는 천이 관찰자의 시야로부터 식탁을 가리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The cloth is over the table”로 부호화될 수 있다.

넷째, 탄도체와 지표로 개념화되는 실체의 정확한 특징은 서로 다를 수 있다. “The gift is in the box with the green lid”에서 지표는 여섯 개의 모든 면이 닫혀진 것으로 개념화된다. 반면, “She peeked in at the

chicken in the box”에서 지표는 “the green lid”의 면을 제외한 다섯 개의 면만 닫혀 있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2.3.2 개별 의미

Tyler & Evans(2003)는 전치사의 특정한 실례가 개별 의미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 의미가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형태와 연상되는 다른 의미들에서는 명백하지 않은 부가 의미가 들어 있어야 한다. 즉 개별 의미는 비공간적 의미를 포함하거나 혹은 원형 장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어떤 형상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문맥 독립적인 의미와 실례가 있어야 한다. 즉 개별 의미는 또 다른 의미나 그것이 나타나는 문맥으로부터 추론될 수 없어야 한다.

개별 의미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다음 문장을 예로 살펴보자.

- (8) a. John nailed a board *over* the hole in the ceiling.
- b. John nailed a board *over* the hole in the wall.

(8a)에서 탄도체(the board)와 지표(the hole in the ceiling)는 관찰지점(vantage point)에서는 수평적이지만, 탄도체는 지표보다 물리적으로 아래에 있다. (8b)에서는 탄도체(the board)와 지표(the hole in the wall)는 관찰지점(vantage point)에서 수직적이고, 탄도체는 지표 옆에 있다. (8a)와 (8b)에서는 탄도체와 지표가 서로 다른 공간적 관계를 나타내며, *over*는 구멍을 덮어서 가린다는 부가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첫 번째 기준을 만족한다. (8a)에서 탄도체와 지표의 공간적 관계는 *below*로 부호화되며, (8b)

에서는 next to로 부호화된다. 따라서 덮기 의미 성분은 문맥으로 추론될 수 없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준도 만족하여 (8a) 및 (8b)의 over와 연상되는 덮기 의미 성분이 개별 의미가 될 수 있다.

2.3.3 일차적 의미

전치사에 대한 적절한 원형 의미를 선택하는 문제는 전치사의 의미 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쟁점이 되었다. 어떤 학자들은 전치사의 가장 원형적인 의미에 관해 공공연하게 직관에 호소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전치사의 원형 의미에 관한 직관은 학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학자들에 따른 over의 원형 의미를 살펴보자.

이기동(1982)은 여러 가지의 문장에 쓰이는 어느 한 전치사의 의미는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어떤 공통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특징을 갖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공통되는 특성을 찾는 능력은 언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능력과도 깊은 관계가 있으며 전치사의 기본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추상화와 일반화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는 도식적(schematic)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Lakoff(1987)은 over의 일차적 의미가 ‘상위-횡단’이라고 주장하며, “The plane flew over the city”와 같은 문장으로 표상되듯이 탄도체에 이동하는 경로가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reitser(1997)는 일차적 의미(over)가 “The hummingbird hovered over the flower”에서와 같은 상위(above)의 의미와 유사한 어떤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Lakoff와 의견을 달리한다.

Dewell(1994)은 over와 연상되는 일차적인 심적 표상이 호 모양의 궤도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Dewell은 “The cat jumped over the fence”와 같은 문장이 over의 의미 중에 중심적 도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over는 통로(path)를 나타내며 이 통로는 탄도체가 지표를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over는 통로의 모든 점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채워주는 역할은 jump에게 맡겨져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⁸⁾

이기동(2001: 334)은 over의 기본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장 원형적인 X over Y에서 X는 Y의 위쪽에 있고 X는 Y보다 더 크거나 거의 같은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평면적일 수도 있고 선적일 수도 있다. 이 선형적인 것은 실체일 수도 있고, 무엇이 지나간 자취일 수도 있다. 또 X와 Y는 구체적인 개체일 수도 있고 추상적인 개체일 수도 있다.”

Tyler & Evans(2003)는 위의 학자들은 원형 의미를 논증하기 보다는 단언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원형성의 개념 때문이라고 본다. 이들은 일차적 의미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언어적 증거와 경험적 증거로, 어떤 증거도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증거를 함께 사용할 때 실질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언어적 증거로는 가장 초기에 입증된 의미, 의미망 조직에서의 우월성, 합성적 형태에서의 사용, 다른 전치사와의 관계 등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over의 일차적 의미에 대해 가장 초기에 입증된 의미는 고대 튜턴어의 비교급 형태 ufa ‘above’(OED)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인 upari ‘higher’와 관계가 있다.

둘째, 의미망 조직 내에서의 우월성은 망조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개별 의미에 관여하는 독특한 공간적 형상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over에 대한 열다섯 개의 개별 의미 중 여덟 개는 ‘탄도체가 지표보다

8) Dewell(1994)은 객관주의 의미론의 특징을 활용하는 Lakoff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전적으로 영상도식 및 영상도식 변형에 의존하고, 측량을 위한 객관적인 자질을 제거함으로써 Lakoff의 분석을 수정했다.

위에 있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셋째, 전치사는 합성적 단위⁹⁾에 관여하며 over의 경우 많은 합성적 단위는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다’는 의미이다. (예: overhang)

마지막으로, 어떤 한 무리의 전치사는 다양한 공간적 차원을 나누는 합성 집합 또는 대조 집합을 형성한다.¹⁰⁾ 이런 대조 집합에 포함되는 전치사의 의미는 그 집합의 다른 구성원과 대조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그런 대조 집합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한 의미는 일차적 의미가 될 수 있다. over의 경우에, 이 전치사를 above, under, below와 구별하는 의미는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지만 서로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Tyler & Evans(2003)의 언어적 증거에 근거해서 over의 일차적 의미는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는 관계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2.3.4 온라인 의미: 추론 전략

Tyler & Evans(2003)는 Lakoff(1987)가 형태 over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문맥을 지나치게 상술하고자 시도함으로써, 문맥에 근거를 둔 추론 능력의 역할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별 의미는 충분한 추상적인 표상으로서, 문맥적 실마리와 함께 개념적 층위에서 통합될 때 일련의 온라인 해석이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¹¹⁾

예를 들어, Lakoff은 아래의 (9a)와 (9b)에 있는 over의 용법이 두 개의 개별 의미를 나타내는데, 왜냐하면 지표가 (9a)에서는 넓은 공간을 나타내

9) 합성어 형태 및 동사-불변화사 형태

10) 전치사 above, over, under, below는 수직 차원을 관련된 네 개의 하위공간으로 나누는 합성 집합을 형성하며 up과 down, before와 after, in front of와 behind 및 in과 out은 대조 집합(contrast set)을 형성한다.

11) 특히 Lakoff은 경로를 이동하는 탄도체와 연상시킨다. 예컨대, 문장 The plane flew over에 대한 도형을 설명할 때, 그는 ‘그림이 있는 화살표가 탄도체에 따라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다’(1987)라고 말한다.

므로 확장적이지만, (9b)에서는 좁은 공간을 나타내므로 비확장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Lakoff은 (9a)에 있는 *over*의 의미가 (9c)와 같은 문장에 있는 *over*의 의미와 구별되고, (9b)에 있는 *over*의 의미는 (9d)에 있는 *over*의 의미와 구별되는데, 왜냐하면 (9a)와 (9b)에는 *over*와 연관되는 경로가 있지만 (9c)와 (9d)에는 경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9) a. The plane flew *over* the city.
- b. The bird flew *over* the wall.
- c. The plane hovered *over* the ocean.
- d. The hummingbird hovered *over* the flower.

그러나 Tyler & Evans(2003)는 (9c)에서 탄도체가 수평인 확장적 지표 위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반면 (9d)에서는 탄도체가 비확장적 지표 위를 가로질러 이동한다는 해석은 어휘적 형태 *over*와 연상되는 의미적 표상이 아니라 문맥에서 채워진 정보로부터 도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over*가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형상을 규정하지만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정확한 세부 내용은 문맥적 추론에서 도출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Lakoff가 제시한 상위-횡단이라는 경로 의미가 *over*와 연상되는 어휘적 표상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호화되는 것이 아니라 백과사전적 지식과 문맥적 실마리를 통합하여 온라인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Tyler & Evans(2003)는 온라인 해석을 도출할 때 청자가 이용하는 추론 전략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최고의 어울림(best fit)으로 개념적인 공간적 관계와 의사소통상의 필요성이 가장 잘 어울리도록 하는 전치사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둘째, 실제 세계의 힘 역학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real world force

dynamics)으로 발화를 창조하고 해석할 때 화자와 청자는 공간적 장면의 모든 요소가 실제 세계의 힘 역학의 지배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The cat jumped over the wall”과 같은 문장을 해석할 때, 고양이가 벽 위에 떠있을 수 없으며 중력의 지배를 받고 벽을 뚫고 뛰어넘을 수 없다 등 우리는 고양이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을 적용할 것이다.

셋째, ‘위상적 확장’(topological extension)으로서, 이것은 개념화된 공간 및 공간적 관계는 고정된 거리, 양, 크기, 외형, 각 등과 같은 측량적 개념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탄도체-지표 형상은 원형 장면이 지시하는 관계가 일정하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변형될 수 있다.

2.3.5 화용적 강화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서는 어휘 의미의 변화와 확장이 화용적 추론(즉, 문맥적 함축)으로부터 초래된다고 본다. 화용적 강화(pragmatic strengthening)란 경험에서 도출되는 추론이 계속 사용되어서 어휘적 형태와 관습적으로 연상되는 것을 말한다. 실례로서 다음을 고려해 보자.

(10) Mary bent down to look at the dead man’s face, but there was a thick cloth *over* it.

(10)에서 *over*은 탄도체(the cloth)가 지표(the dead man’s face)보다 위에 있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덮기의 의미적 요소를 첨가하고 있다.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서는 *over*가 환기시키는 이런 부가 의미가 문장 문맥 내에서 이루어진 해석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즉 (10)이 기술하는 공간적 장면에서

the cloth(탄도체)가 the dead man's face(지표)보다 위에 있으며 천은 메리와 죽은 사람의 얼굴 사이에 있다. 두꺼운 천(일반적으로 불투명하다)과 사람의 시력(인간은 불투명한 사물을 관통해서 볼 수 없다)의 본지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주어지면, 사람의 얼굴 위에 있는 천이 메리로부터 얼굴을 덮고 그것을 가린다고, 즉 메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문맥 그 자체가(추론과 실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덮기/가리기의 함축을 제공한다. 함축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것의 일부인 장면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으로 재분석될 수 있다. 이런 재분석은 함축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것의 일부인 장면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으로 재분석될 수 있다. 이런 재분석은 함축이 그것이 관련되는 어휘적 형태, 즉 이 경우에는 over와 연상되는 개별 의미 성분으로 관습화되도록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상위' 의미, 즉 원형 장면 외에 over에는 그것과 연상되는 덮기 의미가 있다. 의미 기억 속에서 일단 예증되면, 이런 부가 의미는 원래 그것을 발생시킨 문맥과 관계없는 새로운 사용의 문맥에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over가 처음에 함축을 발생시킨 원래의 탄도체-지표 형상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문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관습화된 덮기 의미를 발현시켰다고 주장할 것이다.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서는 over가 환기시키는 이런 부가 의미가 문장 문맥 내에서 이루어진 해석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또한, Tyler & Evans(2003)는 이런 부가 의미가 원래 그것을 발생시킨 문맥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용의 문맥에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런 관습화된 의미가 사용될 때 화자는 더 이상 은유적 개념화에 능동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 3 장 Over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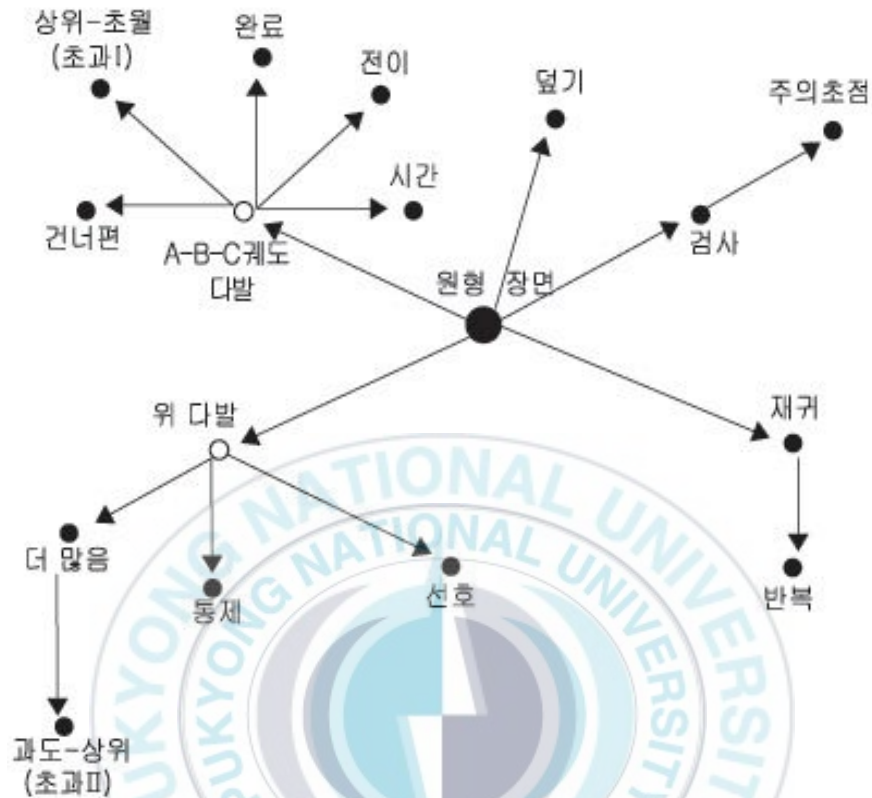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Tyler & Evans(2003)의 ‘원칙적 다의성 모형’을 제시하여 다의성 오류를 해결하고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 입각해서 개별 의미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 후, over에 대한 의미망 조직속에 있는 여러 의미들을 원형 장면을 포함해서 열다섯 개의 개별 의미로 나누어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3.1 over의 의미망

전치사와 연상되는 일차적 의미는 원형 장면이다.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서는 의미망 조직에 있는 다른 의미들이 원칙적인 방식으로 원형 장면으로부터 도출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서는 [그림 5]과 같이 over의 의미망 조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5]에서 검은색 원은 각 개별 의미를 나타내며, 흰색 원은 의미 다발(cluster of senses)¹²⁾을 표시한 것이다. 원형 장면은 중앙에 있는데, 이것은 원형 장면이 일차적 의미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의초점 의미, 과도-상위 의미, 반복 의미는 다른 관습화된 의미가 환기시키는 개념화로부터 발생하는 관습화된 개별 의미를 묘사한다. 이것은 개념화의 재분석이 잠재적으로 순환적이고, 개별 의미가 재분석의 여러 실례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12) 의미 다발이란 복합적 개념화가 여러 의미들을 발생시킨 것을 말한다.



[그림 5] over의 의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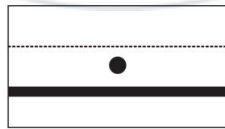
3.2 over의 원형 의미

Tyler & Evans(2003)는 단어의 일차적 의미를 정하는 언어적 기준으로 통사적 기준, 우월성의 기준, 합성 형태에서의 사용 기준, 다른 전치사와의 관계 기준, 문법적 예측 기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이 다섯 개의 기준이 over의 원형 장면이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는 공간적 형상과 관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 (11) a. The picture is *over* the mental.
 b. The bee is hovering *over* the flower.
 c. The tree is leaning *over* the river.

(11a) - (11c)의 각 문장에서 기술되는 공간적 장면에서, 공간적 관계는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지만 지표와 잠재적으로 접촉하는 관계이다. 즉 탄도체는 지표와 충분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탄도체가 지표와 접촉할 수 있다. 보통 벌은 꿀을 따기 위해 꽃에 내려앉으며, 나무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강 표면과 닿을 수 있으며, 그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공간적 형상으로부터 초래되는 기능적 양상은 지표(또는 탄도체)가 탄도체(또는 지표)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원형 장면은 [그림 6]로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탄도체는 검정색 원으로 표시되고 지표는 두꺼운 수평선으로 표시되고 있다. 지표에 인접해 있는(즉, 지표와 잠재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개념화되는 지역은 점선으로 범위가 정해진다.



[그림 6] over의 원형 장면

[그림 6]의 over의 원형 장면은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지만 지표와 잠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공간적 형상과, ‘탄도체와 지표는 서로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기능적 요소를 동시에 보여준다. 다음

문장 (12)는 탄도체가 인접한 지표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over*가 사용될 것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한 언어적 증거가 된다.

(12) [?]The birds are somewhere *over* us.

*somewhere*가 지시하는 위치는 명백하지 않다. 이것은 탄도체 ‘the birds’가 지표 ‘us’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over*가 아니라 *above*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above*의 원형 장면은 탄도체가 지표 위에 있지만 지표의 잠재적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공간적 형상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대조 집합을 형성하는 ‘다른 전치사와의 관계’라는 기준을 사용하며, *over*의 경우 탄도체와 지표가 잠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 진다.

(13) a. The skier skimmed *over* the snow.

b. [?]The skier skimmed *above* the snow.

스키 타기 행동에 대해 인간은 눈과 접촉한다고 이해한다. 그렇기에 영어 원어민 화자에게 (13a)는 완벽하게 수용 가능한 문장이지만, (13b)는 어색한 문장일 것이다. (13)의 예는 *over*가 탄도체가 지표와 잠재적으로 접촉한다는 공간적 형상을 지시한다고 제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림 6]의 *over*의 원형 장면의 기능적 양상은 탄도체와 지표가 서로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이다. 탄도체가 지표와 잠재적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탄도체는 지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표는 탄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험적 상관관계에 의해 우리는 힘 있고 통제하는 실체는 통제 받고 있는 실체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우리

가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은 그 대상이 되는 실체보다 더 높은 곳에 있고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달려 있다. 이런 개념은 *above*가 아니라 *over*에 의해서 지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over*와 *above*는 둘 다 상위라는 공간적 관계를 지시하지만 *over*만이 영향이라는 기능적 관계를 지시한다. 이것은 *over*의 공간적 형상에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잠재적 접촉의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14) a. She has a strange power *over* me.

b. ?She has a strange power *above* me.

(14a)의 *over*의 용법은 완벽하게 수용된다. 하지만 (14b)는 분명히 어색하다. (14)의 예는 *over*의 원형 장면의 공간적 형상이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영향이라는 기능적 요소가 있음을 시사한다.

*over*가 전치사가 아니라 문법적으로 다른 기능을 할 때도 *over*의 원형 장면은 명백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접두사로서의 *over*의 용법을 보여주는 *overarch*(~위에 아치를 만들다), *overbridge*(~을 건너다), *overpass*(~을 통과하다), *overhead*(머리 위에), *overarm*(어깨 너머로) 등의 합성어에서 *over*의 의미는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다’는 원형 장면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over*에서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가 일차적인 증거가 된다. 물론, 어떤 단어가 합성적 형태에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의미가 일차적인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합성적 형태에 참여하기 못한다는 사실은 특정한 의미가 아마도 의미망 조직에서 일차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전치사의 전체 범주 내에서 어떤 한 무리의 전치사는 다양한 공간적 차원을 나누는 합집합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전치사 *above*,

over, under, below는 수직 차원을 네 개의 하위 공간으로 나누는 합집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over와 under, above와 below는 대조 집합(contrast set)을 이룬다. 대조 집합에 참여하는 전치사의 의미는 합집합의 다른 전치사와 대조되는 방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그런 대조 집합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한 의미의 전치사는 일차적 의미일 가능성이 클 것 같다. over를 above, under, below와 구별하는 의미는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지만 잠재적으로 지표의 범위 내에 있다는 개념과 관계가 있다.

Tyler & Evans(2003)는 Lakoff가 직관에 의해 over의 원형 의미를 ‘상위-횡단’으로 포착했다고 지적하며, ‘문법적 예측’기준을 이용하면 over의 원형 장면이나 개별 의미에는 ‘경로’에 근거한 의미가 없다는 언어적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증거를 경로를 관습적으로 부호화하는 전치사 across에서 찾고 있다.

(15) ²The helicopter hovered *across* the city.

위의 (15)의 문장에 대한 해석은 across가 환기시키는 경로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동사 hovered가 환기시키는 의미 때문에, 탄도체가 이동한다는 해석과 경로의 현저성이 부인된다. 그래서 (15)의 의미는 이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장 문맥이 이동하는 탄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15)와 같은 문장에서 over가 탄도체가 궤도를 따라 이동하고 있지 않은 관계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16) The helicopter, which is at this moment flying north at 100km an hour, is *over* the crash site.

Tyler & Evans(2003)는 (16)에서 탄도체가 궤도를 따라 이동한다고 해석되는 이유를 문장 문맥이 탄도체가 이동해서 건너편에 가 있다는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over*가 주위의 문장 문맥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17)은 탄도체가 궤도를 따라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17) The helicopter hovered *over*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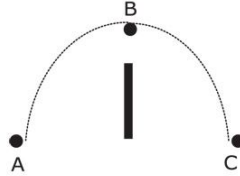
*over*의 원형 장면이 ‘상위-횡단’해석을 포함한다면, (17)은 중의적이다. (17)을 ‘상위-횡단’으로 해석하면 이상하지만, 비경로로 해석하면 수용되는 문장이 되므로 중의성이 사라진다. 이러한 언어적 증거는 원형 장면과 의미망 조직에 경로의 존재 여부에 근거한 개별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궤도 해석의 존재 여부에 전치사 *over*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화 문맥이나 문장 문맥에 있는 것이다.

3.3 Over의 개별 의미

3.3.1 A-B-C 궤도 다발

Tyler & Evans(2003)에 따르면, 인간은 추론 전략을 통해서 환경과 일상 생활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폭넓은 지식에 의존해서 그럴 듯한 해석을 구성하게 된다. 이들은 [그림 7]를 통해 문장 (18)을 해석할 때 이용되는 추론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18) The hare jumped *over* the fence.



[그림 7] A-B-C 궤도 다발

[그림 7]에서 탄도체(the hare)가 궤도를 따라 차지하는 다양한 지점은 A, B, C라는 세 개의 원으로 표시되고 있다. 벽의 잠재적 범위 내에 있는 지점인 B만이 (18)의 문장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A와 C 지점은 ‘뛰어오르기’, ‘산토끼’, ‘벽’에 대한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추론된다. 동사 jumped는 뛰어오르기 위해 지면을 사용하는 자체 추진적 이동을 부호화한다. 따라서 A 지점은 궤도의 처음 지점으로 암시된다. B 지점은 over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호화된다. 그래서 동사 jumped로 시작되는 궤도가 B지점과 만나는 방식으로 매체들이 통합된다. 그렇게 되면, 실재 세계 힘 역학에 관한 지식이 C 지점을 채운다.

또한, Tyler & Evans(2003)는 [그림 7]을 통해 (18)과 같은 문장을 해석할 때 구성되는 복합적 개념화¹³⁾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에서 도식으로 표상되는 복합적 개념화에는 탄도체와 지표 사이에 공간적 관계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화자에게는 탄도체와 지표의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를 언급할 것인지에 대한 잠재적인 선택권이 많이 있다. 예컨대, A와 C 지점에서 산토끼는 벽 옆(beside)에 있다. 산토끼는 또한 벽 가까이에서(near) 뛰어오르는 것으로 기술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권은 ‘산토끼가 뛰어올라서 궤도의 한 지점에서 벽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개념

13) 복합적 개념화(complex conceptualization)는 발화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초래되는 심적 표상이다. 복합적 개념화는 구성된 표상으로서 보통 온라인으로 생산된다. 복합적 개념화는 실재에 대한 인간의 투사를 나타낸다. 언어적 형태와 연상되는 의미적 표상, 문맥적 실마리, 백과사전적 지식의 통합이 복합적 개념화를 구성하는 매체가 된다.

화를 적절하게 구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beside나 near와 같은 전치사는 [그림 7]에서 표상되는 복합적 개념화를 청자가 구성하도록 촉발하는 공간적 형상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이 때, 영어 화자는 ‘최고의 어울림’이라는 추론을 활용하여 영어 전치사 중에서 over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공간적 관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전치사라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Tyler & Evans(2003)는 Lakoff가 어떤 정보를 표상하는 언어의 형식적 표현과 문장의 다른 언어 요소들이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통합하는 개념화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A-B-C 궤도 다발’에 있는 다섯 개의 개별 의미는 모두 복합적 개념화에 대한 재분석으로 도출된다.

3.3.1-1 건너편 의미

Tyler & Evans(2003)는 ‘건너편 의미’는 문맥에서 도출할 수 없는 over의 개별 의미라는 점을 다음의 (19)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19) Arlington is *over* the Potomac River from Georgetown.

(19)에서 동사 is는 이동의 의미를 암시하지 못한다. 동사는 보통 이동에 대해 부호화하며 궤도를 환기시키므로, 동사 is가 부호화하는 이동이 없다는 것은 궤도를 환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궤도가 없다면 시작점과 끝점도 없다. 그러므로 (19)에서 건너편 의미를 문맥으로부터 도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어 원어민 화자라면 Arlington이 Georgetown에서 시작되는 Potomac River의 건너편에 있는 것으로 (19)을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over가 문맥 독립적으로 건너편 의미와 연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에서 건너편 의미는 원형 장면에서 명백하지 않은 의미를 첨가하고, 또한 이 문장에서 over의 용법은 문맥 독립적이므로, 개별 의미를 확정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므로 over의 건너편 의미는 개별 의미가 된다.

Tyler & Evans(2003)의 [그림 8]은 over의 건너편 의미를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8] 건너편의미

[그림 8]에서 왼쪽의 눈 모양의 도식은 관찰지점을 나타내고, 수직선은 방해물을, 검은색 점은 탄도체를 나타낸다.

(20) The ball landed *over* the wall.

위의 (20)는 [그림 8]에서 해석자, 즉 관찰지점이 A 지점 근처에 있고, 벽 너머에 있는 지역이 C지점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적절하다. 따라서 건너편 의미를 초래하는 over에 대한 재분석으로 원형 장면에 두 가지 변화가 생긴다. 하나는 C지점에 특권을 부여해서 C를 탄도체가 위치하는 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찰 지점이 옮겨져서 해석자가 A 지점 근처에 위치한다는 것이다.¹⁴⁾ 탄도체는 관찰 지점이 반대편이 되는 경우에만 지표의 건너편에 있을 수 있다.

아래의 문장에서 over는 건너편 의미이다. 이들 문장에서는 탄도체가 지

14) over의 원형장면에서 기본적인 관찰 지점은 ‘무대 밖’ (offstage)에 있다.

표보다 물리적으로 위에 있거나 뛰어오르기(상위)와 이동이 관여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없다.

- (21) a. Arlington is just *over* the river.
b. The old town lies *over* the bridge.
c. Sam lives *over* the hill.

Lakoff(1987)은 (21c)의 문장을 수직적이고 확장적 지표가 있는 상위-횡단,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접촉, 끝점 초점을 활용하여 *over*의 ‘상위-횡단’의 의미를 입증하는 예로 사용했다. Tyler & Evans(2003)는 이러한 Lakoff의 분석은 *over*의 의미를 경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상위 횡단의 의미로 잘못 파악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 (22) a. The mansion is situated *over* that wall.
b. John lives *over* the hill.

(22)에서 *over*는 관찰지점으로부터 탄도체(the mansion, John)가 지표(that wall, the hill)의 건너편에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거나 뛰어오르기와 이동이 관여하지 않아도 건너편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의미는 상당히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다.

3.3.1-2 상위-초월(초과 I) 의미

상위-초월 의미는 탄도체가 의도한 목표물인 지표를 넘어서 이동한 것을

나타낸다. 이런 상위-초월 의미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예증된다.

(23) The arrow flew *over* the target and landed in the woods.

(23)에서 탄도체(the arrow)는 지표(the target)를 넘어갔거나 행위자가 의도 했던 곳을 초과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24) a. Your article is *over* the page limit.

b. Many students wrote *over* the word limit in order to provide sufficient detail.

위의 문장은 탄도체가 지표보다 다소 물리적으로 위로 넘어간다는 공간적 형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각각 분량 한도와 단어 한도가 지표로 해석되고 논문과 학생이 탄도체로 해석된다. 이 때 *over*가 초과 의미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때 *over*가 이들 문장에서 뜻이 통하게 된다.



[그림 9] 상위-초월 의미 (초과 I 의미)

Tyler & Evans(2003)는 지표를 중심 과녁으로 표상하고 궤도의 현저한 ‘초월’(beyond) 부분을 두드러지게 함으로써 *over*의 상위-초월(초과 I) 의미를 [그림 9]으로 도식화하고 있다.

3.3.1-3 완료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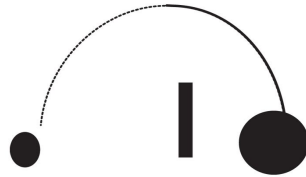
Tyler & Evans(2003)는 over와 연상되는 ‘완료 의미’(completion sense)는 완료에 대한 함축이 [그림 7]에서 표상되는 복합적 개념화와 구별되는 것으로 재분석된 결과로 발생했다고 설명한다. 일단 재분석이 발생하면 이동으로부터 초래되는 마지막 위치는 이동의 완료와 상관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개별 의미는 화용적 강화를 통해 의미망 조직에서 형태 over와 연상된다.

- (25) a. The cat's jump is *over*.
b. The film/game/play is *over*.

Tyler & Evans(2003)는 탄도체의 공간적 위치가 ‘과정의 양상’(an aspect of a process)을 대표하는 것으로 재해석됨으로써 완료라는 의미 성분이 초래된다고 보고 있다. 문장 (25)의 경우, 공간을 통해서 장애물을 넘는 이동의 끝점, 즉 탄도체가 정지하는 위치는 이동의 완료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들 문장에서 완료 의미는 순수한 공간적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완료는 지표가 아니라 과정을 가리킨다. 건너편 의미는 과정이 완료될 때 탄도체의 공간적 위치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완료 의미는 [그림 7]의 C 지점을 이동 또는 과정의 양상의 끝으로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런 점에서 완료 의미는 건너편 의미와 결정적으로 다르다. 15)

15) Tyler & Evans(2003)는 완료 의미는 본질적으로 부사적이라고 본다. 이것은 문장 (25)에서 볼 수 있듯이 완료 의미의 경우 전치사가 탄도체와 지표 사이에 배치되는 탄도체-지표 형상을 중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통사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Tyler & Evans는 완료 의미는 전치사로 표상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전치사’(adprep)에 의해 표상된다고 주장한다.

[그림 10]은 Tyler & Evans(2003)가 제시한 over의 완료 의미 도식이다. 왼쪽에 있는 작은 검은색 원은 과정이 시작되는 탄도체의 위치를 나타내고, 초점을 받는 오른쪽의 큰 원은 끝점이나 완료를 나타낸다.



[그림 10]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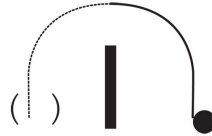
3.3.1-4 전이 의미

[그림 7]로 표상되는 개념화의 결과는 ‘전이 의미’(the transfer sense)를 발생시킨다.

- (26) a. He signed *over* the money to his son.
b. Hand it *over*!

위의 문장에서 구성되는 개념화는 탄도체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그림 7]에서 도식화된 개념화로부터 나온다. 전이의 의미는 공간적 장면을 탄도체가 A 지점에서 새로운 위치인 C 지점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발생한다. Tyler & Evans(2003)는 실체의 위치 변화가 실체의 전이의 경험적 상관관계를 이룬다고 주장하면서, 위치 변화는 종종 전이가 발생한다는 함축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이 의미는 완료 의미와 함께 궤도나 과정의 재분석을 수반한다.

[그림 11]로 도식화되는 ‘전이 의미’에서 탄도체는 장애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이 때 검은색 점으로 표현된 탄도체는 초점을 받는다.



[그림 11] 전이 의미

전이 의미의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 (27) a. The old government handed its power *over* to the newly elected officials.
 b. All right carry *over* to the purchaser.

(27a)는 정부 관료가 자신의 권한, 즉 통치령을 새로운 관료에게 넘긴다는 것이고, (27b)는 권리가 구매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나타낸다. (27)에서는 탄도체(power, right)가 비물리적 실체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3.3.1-5 시간의미

‘시간 의미’(the temporal sense)에서 *over*는 특정한 탄도체와 지속 기간 사이의 시간적 관계를 중재한다.

- (28) a. *Over* the years he's become lazier and lazier.

b. Will you be at home *over* Christmas?

위의 문장에서 탄도체는 시간을 통해서 표명되고 시간 지표(the weekend, the years)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시간 의미라고 부른다. 시간 의미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해 보자.

(29) The boy walked *over* the hill.

문장 (29)의 예는 A-B-C 궤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언덕과 같은 확장적 지표를 횡단할 때는 비확장적 지표를 횡단할 때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즉, 거리를 더 많이 횡단하면 할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거리와 지속 기간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 때문에, (28a)와 (28b)의 문맥에서 지속 기간은 *over*와 연상되는 현저한 함축이다. 문맥의 특정한 양상이 개별 의미로 재분석된다는 화용적 강화 때문에, 지속 기간과 관계있는 시간성의 개념은 어휘소 *over*와 관습적으로 연상된다. 만일 *over*가 시간 의미와 관습적으로 연상되지 않는다면, (28a)와 (28b)에 있는 *over*가 지시하는 관계가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Tyler & Evans(2003)는 이러한 시간 의미의 도출을 [그림 12]로 도식화하고 있다.



[그림 12] 시간의미

[그림 12]는 굵은 수평선은 지표를 나타낸다. 점선 화살표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탄도체가 지표를 가로질러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다.

3.3.2 덮기

탄도체의 지표가 물리적 실체일 때 탄도체가 지표보다 더 작은 것이 전형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아래의 (30)의 문장에서처럼 실제 세계에서는 탄도체가 지표보다 더 크거나 더 큰 것으로 지각되는 경우가 있다.

(30) He put the newspaper *over* his face.

(30)에서 *over*은 탄도체(the newspaper)가 지표(his face)위를 덮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전형적인 관찰지점 때문에 발생한다.

덮기 의미는 [그림 13]으로 도식화될 수 있다. 눈 모양의 도식은 관찰지점을 나타내고 구형은 탄도체를 나타낸다. 탄도체는 관찰지점으로부터 보았을 때 수평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표를 덮고 있다.

<(●)>



[그림 13] 덮기 의미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31) He is wearing a light-grey suit *over* a shirt.

(31)에서 탄도체는 지표(a light-grey suit)은 지표(a shirt)보다 더 낮은 곳에 있다. 그러나 under가 아니라 over가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이런 관계를 지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31)에서 중요한 것은 덮기의 개념이며, over에는 덮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탄도체-지표의 공간적 형상에도 사용될 수 있다.

3.3.3 상위-근접

3.3.3-1 검사 의미

Tyler & Evans(2003)는 관찰지점이 옮겨진 결과로 over가 ‘검사 의미’(the examining sense)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over가 검사 의미를 발생시키는 장면에서는 관찰지점은 탄도체의 지점이고, 탄도체의 시선은 지표를 향해 있다.

(32) Jack is standing *over* the entrance to the underground chamber.

위의 문장 (32)에서 over는 원형 장면에서 지시하고 있는 공간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32)에서 over는 탄도체(Jack)이 지표(the entrance to the underground chamber)보다 높은 곳에 있지만 근접해 있는 공간적 관계가 필요하다. 또한 검사 의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장면이 문맥상 검사를 암시해야 한다.

(33) We went *over* the accounts very thoroughly but couldn't find any mistakes.

위의 문장 (33)에서 탄도체(We)는 지표(the accounts)보다 물리적으로 위에 있고 그 근처에 있다. 따라서 탄도체와 지표는 over의 원형 장면과 연상되는 공간적 형상 속에 있다. 게다가, 탄도체는 원고 쪽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인간이 무언가를 볼 때는 보통 어떤 목적이 있다는 우리의 지식으로부터 발생한다. 주의를 지표 쪽으로 돌린다는 부가적인 의미 요소는 검사 의미에 본질적이다.

Tyler & Evans(2003)는 검사 의미를 [그림 14]로 도식화하고 있다. 눈모양의 도식은 관찰지점으로 탄도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표보다 위에 있고 그 근처에 있다. 관찰지점은 초점을 받고 있지만 지표는 초점을 받고 있지 않다.



[그림 14] 검사 의미

아래의 문장 (34)은 over의 검사 의미가 개별 의미라는 증거가 된다.

(34) The mechanic looked *over* the train's undercarri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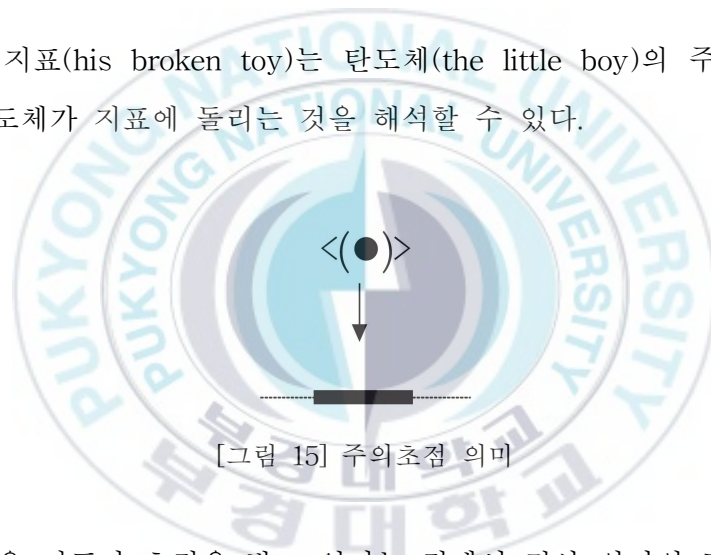
(34)에서는 탄도체(the mechanic)이 지표(the train's undercarriage)보다 물리적으로 아래에 있어야 한다. 즉 (34)에서 탄도체는 지표 아래에 있으며, 이런 탄도체-지표의 공간적 형상도 over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3.3.3-2 주의초점 의미

주의초점 의미는 검사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검사 의미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검사대상인 지표가 탄도체의 주의의 초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초점 의미의 *over*은 *about*로 바꿔 말할 수 있다.

(35) The little boy cried *over* his broken toy.

(35)에서 지표(*his broken toy*)는 탄도체(*the little boy*)의 주의초점이다. 따라서 탄도체가 지표에 돌리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5] 주의초점 의미

[그림 15]은 지표가 초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 의미의 도식 [그림 14]과 약간 다르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36) a. You'd better talk it *over* carefully.

b. The search committee agonized *over* the decision.

주의초점 의미가 일단 기억 속에서 예증이 되면, (36)에서처럼 비물리적인 탄도체와 지표도 주의초점 의미로 지시될 수 있다.

3.3.4 위 다발

[그림 16]으로 도식화되는 ‘위 다발’의미는 상승 방위(upward orientation)가 탄도체에 할당된다.



[그림 16] 위 다발

상승 방위는 인간 경험에서 의미심장하다. 수직 상승된 위치에 있는 요소는 물리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요소보다 긍정적이고 한층 더 우월한 것으로 경험된다. 탄도체가 지표보다 위에 있는 over의 원형 장면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시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The picture is over the mental”로 기술되는 장면에서는 그림이 벽난로 선반보다 한층 더 좋거나 우위의 지점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3.4-1 더 많음 의미

더 많음 의미에서 over은 지표보다 위에 있는 탄도체의 관계를 나타내며 어떤 실체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나타낸다.

(37) Jerry found *over* fifty kinds of caps at the store.

(37)에서 *over*는 ‘더 많음’ (the *mores sense*)의미로 해석된다. 지표(forty kinds of caps)는 어떤 기준(standard)이나 측정(measurement)으로 해석되며, 탄도체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더 많음 의미를 도식화하고 있는 [그림 17]에서 탄도체는 지표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며 더 많은 양과 상관관계를 이룬다.



[그림 17] 더 많음 의미

확정된 개별 의미는 비물리적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데도 이용된다. 아래의 문장 (38)에서 *over*는 비물리적 탄도체인 나이, 몸무게, 속도, 지속 시간 등을 지표와 관련시켜 더 많음 의미로 발생시키고 있다.

- (38) a. John is *over* fifty years of age.
 b. He weighs just *over* 100kg.
 c. The car was going *over* 80 km an hour.
 d. Mimi has been in Europe for *over* six months.
 e. Cigarettes kill *over* a hundred thousand Britains ever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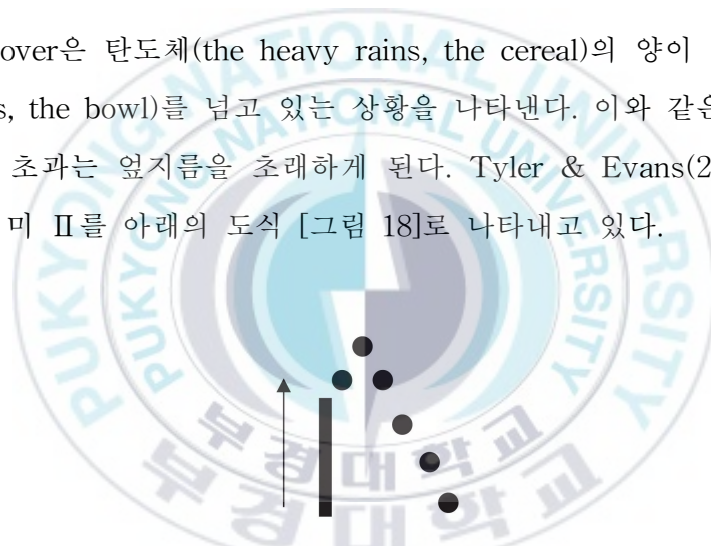
3.3.4-2 과도-상위 의미(초과 II)

‘과도-상위 의미’(the *over and above sense*)는 더 많음 의미와 밀접하

게 관련이 있다. 과도 상위 의미는 더 많음 의미에 ‘너무 많음’(too much) 의미를 추가한다. Tyler & Evans(2003)는 이러한 의미는 포함과 관계있는 장면을 재분석한 데에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 (39) a. The heavy rains caused the river to flow *over* its banks.
 b. Lou kept pouring the cereal into the bowl until it spilled *over* and onto the counter.

(39)에서 *over*은 탄도체(the heavy rains, the cereal)의 양이 너무 많아서 지표(banks, the bowl)를 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지표의 용량에 대한 초과는 옆지름을 초래하게 된다. Tyler & Evans(2003)는 이러한 초과 의미 II를 아래의 도식 [그림 18]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18] 과도-상위 의미

*over*와 관련 있는 많은 성분은 이러한 초과 의미를 환기시킨다. 그릇의 용량을 넘는 것에 대한 개념화는 *overtired*(과로시키다), *overdevelop*(지나치게 발달시키다), *overanxious*(지나치게 걱정하는) 등과 같은 어휘에서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어휘들은 ‘표준을 초과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overtired*’의 경우, 피곤함의 수준이 이르지 못한 목적지라는 것이 아니라 피곤함의 정도가 표준 용량을 초과했다는 개념화가 관

여하고 있다. 이로써 Tyler & Evans(2003)가 초과 I 의미와 초과 II 의미를 구분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초과 I 의미는 궤도를 따르는 이동 및 지시된 지점을 넘어서 간다는 것에 대한 해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상위-초월 의미’이고, 초과 II 의미는 그릇의 용량과 표준을 초과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과도-상위 의미’이다.

3.3.4-3 통제 의미

수직 상승과 연상되는 세 번째 경험적 상관성은 통제(control)나 권력(power) 현상이다. over와 연상되는 통제 의미는 Lakoff(1987)가 제시한 다음 문장으로 증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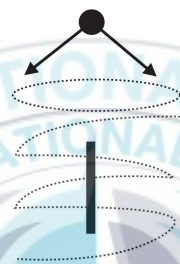
(40) He's never had any influence *over* her.

이 문장에서 탄도체(He)는 지표(her)보다 높은 곳에 있다. 그러나 탄도체가 지표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0)의 문장에서는 ‘탄도체가 지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지표를 통제한다’라는 관습적인 의미가 도출된다. ‘통제 의미’(the control sense)는 문맥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그래서 Tyler & Evans(2003)가 제시한 방법론에 의해 통제 의미는 의미 기억 속에서 예증되는 개별 의미가 된다.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물리적으로 더 크고 위에 있는 것은 종종 물리적으로 더 작고 낮은 곳에 있는 것을 통제한다. 이처럼 통제와 수직 상승은 상관관계가 있다. Tyler & Evans(2003)는 독립적으로 유발되는 통제와 수직 상승은 사이의 경험적 상관관계 때문에 over에서 통제의 의미가 도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제의 상관물은 수직 상승이지만, 통제력을 발

회하기 위해서는 통제자는 피지배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피지배자 근처에 있어야 한다. over의 원형 장면은 탄도체가 지표보다 물리적으로 위에 있고 지표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따라서 over는 통제 해석을 발생시킨다.

Tyler & Evans(2003)는 over의 통제 의미를 [그림 19]로 도식화하고 있다. 나선형의 점선은 탄도체(원)가 지표(수직선)를 통제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림 19] 통제

통제 의미가 일단 개별 의미로 의미 기억 속에서 예증되면 원래 동기화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통제 의미는 아래의 문장 (41)에서처럼 비물리적 탄도체와 지표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 (41) a. Robert has authority *over* purchasing.
 b. The prime minister holds sway *over* all the important decisions.
 c. Personality has more influence *over* who we marry than physical appearance.

- d. The oil companies have lost their power *over* oil price and oil production.
- e. He has little control *over* his emotions.

3.3.4-4 선호 의미

‘선호 의미’에서 더 높은 것은 관습적으로 더 낮은 것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42) a. I would prefer coffee *over* tea.
- b. I like Beethoven *over* Mozart.
- c. I favor baseball *over* tennis.

(42)에서는 탄도체(tea, Beethoven, soccer)가 지표(coffee, Mozart, tennis)보다 선호되고 있다. 선호 의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출된다. 물리적으로 위에 있는 것이 더 많은 양을 함축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양은 일반적으로 더 적은 양보다 선호된다. 따라서 위에(*over*) 있는 것은 선호되는 상태를 함축한다. 예를 들어, “I’m feeling up today”에서처럼 물리적으로 위에 있는 것은 긍정적인 상태를 연상시킨다. 반면에, “I’m feeling down today”에서처럼 물리적으로 아래에 있는 것은 부정적인 상태와 관련된다.

이러한 경험적 상관관계는 수직 상승의 위치와 연상되는 상태가 더 낮은 위치와 연상되는 상태보다 선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 20]에 나타나 있듯이 더 높은 곳에 있는 탄도체는 초점을 받지 않는 지표보다 선호된다. 따라서 위에 있는 것은 선호되는 상태를 함축한다.



[그림 20] 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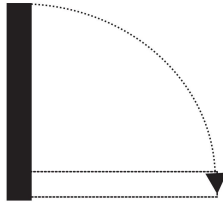
3.3.5 재귀성

3.3.5-1 재귀 의미

공간적 재귀성은 다중 위치에 있는 하나의 실체가 차지하는 두 개의 현저한 위치가 하나의 탄도체 지표 공간적 형상으로 통합되는 것처럼 개념화되는 현상이다.

(43) The fence fell *over*.

위의 문장에서 울타리의 처음 위치는 직립이지만 마지막 위치는 땅에 수평으로 놓여 있다. 인간은 경험으로 울타리가 90도의 호로 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험에서 공간적 관계는 시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두 개의 위치가 하나의 공간적 형상으로 통합되어서 추상된다. 그러나 울타리를 재귀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한 실체는 탄도체이면서 동시에 지표일 수 있다. ‘재귀 의미’(the reflexive sense)를 도식화하고 있는 [그림 21]에서 검은색 수직선은 탄도체이면서 동시에 지표(내던져진 수평선)이다. 점선 화살표는 경로를 보여준다. 시간상 구별되는 동일한 실체의 두 지점을 Tyler & Evans(2003)는 이런 형상으로 포착하고 있다.



[그림 21] 재귀

재귀 의미의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 (44) a. He turned the page *over*.
 b. His car rolled *over* after a tyre was punctured.
 c. The alarm did go off but all I did was yawn, turn *over* and go back to sle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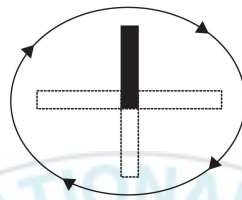
이러한 재귀 의미는 과정(process)을 재분석함으로써 발생한다. 이처럼 *over*가 과정에 운곽 부여하는 데 사용될 때, *over*는 완료전치사로 부호화된다.

3.3.5-2 반복 의미

‘반복 의미’는 *over*의 원형 장면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다. 아래의 예문 (45)에서 *over*는 *again*이나 *anew*로 바뀌 말할 수 있다.

- (45) a. ‘I don’t understand it’, he said, *over* and *over* again.
 b. He plays the same songs *over* and *over*.

Tyler and Evans(2003)는 over와 연상되는 반복 의미 성분이 재귀 의미를 반복적으로 적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들의 이러한 가정은 반복이 본질적으로 순환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는 직관과 일치한다. [그림 22]에서 반복을 초래하는 재귀 의미의 반복적 효과를 포착 할 수 있다.



[그림 22] 반복

지금까지 전치사 over를 Tyler & Evans(2003)의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 따라 원형 의미를 포함한 열다섯 개의 의미로 분류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 따르면 영어 전치사 over와 같은 특정한 형태가 개별적이지만 관계있는 많은 의미와 관습적으로 연상된다. 그러나 한 형태의 문맥상 다양한 모든 용법이 개별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하고 over와 연상되는 개별 의미 성분들이 체계적이고 동기가 있는 방식으로 서로 관계된다고 본다.

다음 장에서는 교과서에 나타난 전치사 over의 예문을 Tyler & Evans(2003)의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 따라 분류하여 빈도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각 의미들이 잘 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 4 장 교과서에 나타난 Over의 의미 분석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총 18권의 중학교 1, 2, 3학년 및 고등학교 공통영어, 영어 I, 영어 II 영어교과서에 쓰인 전치사 over에 대한 의미 유형 분류의 기본적인 틀은 원칙적 다의성 모형을 토대로 하였으며, 그 의미가 어떤 빈도수로 쓰였으며, 각 의미들이 골고루 잘 쓰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석의 방법은 총 18권의 교과서를 텍스트 파일로 만든 다음, ConcApp Concordancing Programs(<http://www.edict.com.hk/pub/concapp/>)을 이용하여 해당 예문을 발췌하여 의미 분석 및 의미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겠다.

4.1 중/고 교과서 개별 의미 분포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교과서 두산(김), 천재, 지학사 1·2·3 및 고등 교과서인 천재, 두산(김), 지학사 공통영어·영어 I·II에 나타난 전치사 over를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 따라 다음의 [표 1]과 같이 분석하여 통계를 집계하였다.

[표 1] 중/고 교과서 개별 의미 분포

교과서 원칙적 다의성 모형		중등교과서	고등교과서	소계(%)
원형장면		13 (40.6%)	17 (20.0%)	30 (25.6%)
A-B-C 궤도 다발	건너편의미	7 (21.9%)	13 (15.2%)	20 (17.1%)
	상위-초월 의미	0 (0%)	0 (0%)	0 (0%)
	완료 의미	2 (6.3%)	3 (3.5%)	5 (4.3%)
	전이 의미	1 (3.1%)	2 (2.4%)	3 (2.6%)
	시간 의미	5 (15.6%)	23 (27.0%)	28 (23.9%)
덧기	덧기 의미	0 (0%)	1 (1.2%)	1 (0.9%)
상위-근접	검사 의미	0 (0%)	2 (2.4%)	2 (1.7%)
	주의초점 의미	2 (6.3%)	4 (4.7%)	6 (5.1%)
위다발	더 많음 의미	1 (3.1%)	8 (9.4%)	9 (7.7%)
	과도-상위 의미	0 (0%)	0 (0%)	0 (0%)
	통제 의미	0 (0%)	6 (7.1%)	6 (5.1%)
	선호 의미	0 (0%)	0 (0%)	0 (0%)
재귀성	재귀 의미	1 (3.1%)	4 (4.7%)	5 (4.3%)
	반복 의미	0 (0%)	2 (2.4%)	2 (1.7%)
합계		32 (100%)	85 (100%)	117 (100%)

중등교과서에서는 32개, 고등교과서에서는 85개로, 총 117개의 over를 포함한 구문이 발견되었다.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 따라 개수 및 빈도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등 및 고등교과서에서 원형장면 30개(25.6%), 시간 28개(23.9%), 건너편 20개(17.1%), 더 많음 9개(7.7%), 주의초점 6개(5.1%), 통제 6개(5.1%), 완료 5개(4.3%), 재귀 5개(4.3%), 전이 3개(2.6%), 검사 2개(1.7%), 반복 2개(1.7%), 덮기 1개(0.9%), 상위-초월 0개(0%), 과도-상위 0개(0%), 선호 의미 0개(0%)와 같이 나타났다.

즉, 교과서에 나타난 전치사 over의 의미 중 원형장면에 해당하는 경우가 25.6%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나머지는 개별 의미로 쓰인 경우인데, 시간 의미가 23.9%의 비중을, 건너편 의미는 17.1%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 외의 확장의미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특히, 상위-초월, 과도-상위 및 선호 의미는 모든 교과서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중등교과서에서는 원형장면(40.6%), 건너편(21.9%) 및 시간 의미(15.6%)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어 중학교 학생들은 전치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한 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고등교과서에서는 시간 의미(27.0%), 원형장면(20.0%) 및 건너편 의미(15.2%)의 비율이 중등교과서에 비해 낮아졌으며, 전치사 over의 개별 의미가 다양하게 분포되어있다.

지금까지 중/고 교과서의 개별 의미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중등교과서 출판사별 비교를 통해 over의 쓰임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자.

4.2 중등교과서 출판사별 비교

중등교과서에서는 총 32개의 over를 포함한 예문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형장면 13개(40.6%), 건너편 7개(21.9%) 및 시간 의미 5개(15.6%)가 총 25개(77.1%)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개별 의미는 완료 및 주의초점 의미가 각각 2개(6.3%) 그리고 전이, 더 많음, 재귀 의미가 각각 1개(3.1%) 총 7개(21.9%)의 낮은 비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치사 over의 개별 의미가 미미하게 소개 되었다.

두산(김), 지학사, 천재 3종의 중1 교과서의 본문에서는 단 하나의 over를 포함한 예문을 발견할 수 없었다. 먼저, 두산(김)은 총 7개의 over를 포함한 구문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원형장면 3개(42.8%), 건너편 의미 2개(28.6%) 그리고 전이 및 시간 의미가 각각 1개씩(14.3%)으로 나타났다. 지학사는 총 12개의 over를 포함한 구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의미는 원형장면 6개(50.0%), 주의초점 2개(16.7%) 그리고 건너편, 완료, 시간, 재귀 의미가 각각 1개씩(8.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천재는 총 13개의 over를 포함한 구문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원형장면 4개(30.7%), 건너편 4개(30.7%), 시간 3개(23.1%) 그리고 완료, 더 많음 의미가 각각 1개씩(7.7%)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중등교과서 출판사별 비교를 나타낸 표이다.

[표 2] 중등교과서 출판사별 비교

교과서 원칙적 다의성 모형		두산	지학사	천재	소계(%)
원형장면		3 (42.8%)	6 (50.0%)	4 (30.7%)	13 (40.6%)
A-B-C 궤도 다발	건너편 의미	2 (28.6%)	1 (8.3%)	4 (30.7%)	7 (21.9%)
	상위-초월 의미	0 (0%)	0 (0%)	0 (0%)	0 (0%)
	완료 의미	0 (0%)	1 (8.3%)	1 (7.7%)	2 (6.3%)
	전이 의미	1 (14.3%)	0 (0%)	0 (0%)	1 (3.1%)
	시간 의미	1 (14.3%)	1 (8.3%)	3 (23.1%)	5 (15.6%)
덮기	덮기 의미	0 (0%)	0 (0%)	0 (0%)	0 (0%)
상위-근접	검사 의미	0 (0%)	0 (0%)	0 (0%)	0 (0%)
	주의초점 의미	0 (0%)	2 (16.7%)	0 (0%)	2 (6.3%)
위다발	더 많음 의미	0 (0%)	0 (0%)	1 (7.7%)	1 (3.1%)
	과도-상위 의미	0 (0%)	0 (0%)	0 (0%)	0 (0%)
	통제 의미	0 (0%)	0 (0%)	0 (0%)	0 (0%)
	선호 의미	0 (0%)	0 (0%)	0 (0%)	0 (0%)
재귀성	재귀 의미	0 (0%)	1 (8.3%)	0 (0%)	1 (3.1%)
	반복 의미	0 (0%)	0 (0%)	0 (0%)	0 (0%)
합계		7 (100%)	12 (100%)	13 (100%)	32 (100%)

먼저 중등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over*의 원형장면, 시간, 건너편, 완료 및 주의초점 의미가 반영된 예문을 살펴보자.

첫째, 원형장면 의미가 반영된 예문은 다음과 같다.

(46) a. His hands were full of letters, and a pen was *over* his left ear.

(두산/중2)

b. I set up a light *over* the pot in the dark. (지학사/중2)

(46)는 여러 개체로 나타난 교과서에서 상당히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는 ‘~위에’라는 원형장면 의미를 나타낸다. (46a)는 탄도체(a pen)이 지표(his left ear) 접촉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46b)는 탄도체(a light)가 지표(the pot)보다 위에 있지만 지표와 충분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탄도체가 지표와 접촉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원형장면 의미는 중등 교과서에서는 13개(40.6%)와 고등교과서에서는 17개(20%) 총 30개(25.6%)로 나타난다.

둘째, 시간 의미가 반영된 예문을 살펴보자.

(47) a. Korea had received international help *over* past years.

(지학사/중3)

b. Why did Mike gain weight *over* the vacation? (천재/중3)

(47)은 ‘~에 걸쳐서’라는 시간대의 의미로 이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빈도는 중등교과서에는 5개(15.6%), 고등교과서에서는 23개(27.0%)로 총 28개(23.9%)의 빈도이다.

셋째, (48)의 문장은 건너편 의미이다.

(48) a. After the game, all the players run *over* to Min-su. (지학사/중2)

b. Oh, there's an old temple *over* there. (천재/ 중3)

(48a)의 문장에서 모든 선수들은 민수에게 달려드는 것이며, (48b)는 대화체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다. 빈도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중등교과서에서는 7개(21.9%), 고등교과서에서는 13개(15.2%)로 총 20개(17.1%)의 빈도이다.

넷째, 주의초점의미는 다음과 같다.

(49) The shepherd thought *over* the boy's answer. (지학사/중3)

(49)에 사용된 *over*는 '깊은 생각'을 나타내며, 지표(the boy's answer)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비물리적 실체이며 탄도체(The shepherd)의 초점을 받고 있다. 중등교과서에서는 2개(6.3%), 고등교과서에서는 4개(4.7%)로 총 6개(5.1%)의 빈도이다.

마지막으로, 완료 의미는 다음과 같다.

(50) a. The rainy season is finally *over*. (천재/중2)

b. Long after the concert was *over* and all had left the hall, I stood gazing at the empty stage. (지학사/고등 공통영어)

'끝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완료 의미는 (50a)에서의 탄도체(the rainy season)와 (50b)에서의 탄도체(the concert)의 과정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이

다. 이와 같이 완료의미는 순수한 공간적 관계를 기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상을 기술하는 데에도 쓰인다. 중등교과서에서는 2개(6.3%), 고등교과서에서는 3개(3.5%)로 총 5개(4.3%)의 빈도이다.

출판사별로 비교해 본다면, 두산(김)의 경우 원형장면, 건너편, 시간 의미를 제외한 개별 의미는 1개의 전이 의미에 불과하며 두산을 학습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개별 의미의 over를 학습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다. 한편, 지학사는 완료, 주의초점 및 재귀 의미를 포함한 예문을 나타내고, 천재에서는 완료, 더 많음 의미를 포함한 예문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지학사 및 천재 교과서를 학습하는 학생들은 두산(김)에 비해 좀 더 다양한 over의 개별 의미를 접할 수 있다.

4.3 고등교과서 출판사별 비교

고등교과서에서 나타난 over 총 85개의 구문 중에서, 중등교과서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는 시간 23개(27.0%), 원형장면 17개(20.0%) 및 건너편 의미 13개(15.2%)의 3가지 의미가 총 53개(62.2%)로 중등교과서에 비해 다소 낮아지고, 개별 의미인 더 많음 8개(9.4%), 통제 6개(7.1%), 재귀 4개(4.7%), 주의초점 4개(4.7%), 완료 3개(3.5%) 및 전이, 검사, 반복 의미가 각각 2개(2.4%) 그리고 덮기 의미가 1개(1.2%) 나타났다. 하지만, 상위-초월 의미, 과도-상위 의미 및 선호 의미는 중등 및 고등교과서 어느 한 군데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두산(김)은 총 29개의 over를 포함한 구문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시간 10개(34.5%), 원형장면 9개(31.1%), 건너편 4개(13.8%), 더 많음 및 통제 의미가 각각 2개(6.9%) 그리고 완료 및 반복 의미가 각각 1개씩(3.4%)으로 나타났다. 지학사는 총 25개의 over를 포함한 구문을 발견할 수 있었

는데, 그 의미는 시간 5개(20.0%), 원형장면 및 건너편 의미가 각각 4개(16.0%), 주의초점 및 통제 의미가 각각 3개(12.0%), 완료 2개(8.0%) 그리고 전이, 검사, 재귀 그리고 반복 의미가 각각 1개(4.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천재는 총 31개의 over를 포함한 구문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의미는 시간 8개(25.8%), 더 많음 6개(19.4%), 건너편 5개(16.1%) 원형장면 4개(12.9%), 재귀 3개(9.7%) 그리고 전이, 덮기, 검사, 주의초점 및 통제 의미가 각각 1개씩(3.2%)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비교표를 통해 고등교과서는 중등교과서에 비해 다양한 개별 의미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고등교과서 출판사별 비교

교과서 원칙적 다의성 모형		두산	지학사	천재	소계(%)
원형장면		9 (31.1%)	4 (16.0%)	4 (12.9%)	17 (20.0%)
A-B-C 궤도 다발	건너편의미	4 (13.8%)	4 (16.0%)	5 (16.1%)	13 (15.2%)
	상위-초월 의미	0 (0%)	0 (0%)	0 (0%)	0 (0%)
	완료 의미	1 (3.4%)	2 (8.0%)	0 (0%)	3 (3.5%)
	전이 의미	0 (0%)	1 (4.0%)	1 (3.2%)	2 (2.4%)
	시간 의미	10 (34.5%)	5 (20.0%)	8 (25.8%)	23 (27.0%)
덮기	덮기 의미	0 (0%)	0 (0%)	1 (3.2%)	1 (1.2%)
상위-근접	검사 의미	0 (0%)	1 (4.0%)	1 (3.2%)	2 (2.4%)
	주의초점 의미	0 (0%)	3 (12.0%)	1 (3.2%)	4 (4.7%)
위다발	더 많음 의미	2 (6.9%)	0 (0%)	6 (19.4%)	8 (9.4%)
	과도-상위 의미	0 (0%)	0 (0%)	0 (0%)	0 (0%)
	통제 의미	2 (6.9%)	3 (12.0%)	1 (3.2%)	6 (7.1%)
	선호 의미	0 (0%)	0 (0%)	0 (0%)	0 (0%)
재귀성	재귀 의미	0 (0%)	1 (4.0%)	3 (9.7%)	4 (4.7%)
	반복 의미	1 (3.4%)	1 (4.0%)	0 (0%)	2 (2.4%)
합계		29 (100%)	25 (100%)	31 (100%)	85 (100%)

고등교과서에서 over의 개별 의미 중 더 많음, 통제, 재귀, 전이, 검사, 반복 및 덮기 의미를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더 많음 의미는 다음과 같다.

- (51) a. Both were *over* ten thousand feet high and together, they were four hundred miles wide. (천재/고등 공통영어)
b. *Over* 4,000 volunteers from Korea and other countries participated. (두산/고등영어 II)

(51)는 ‘~이상(more than)’의 뜻을 나타내는 더 많음 의미로 over은 지표보다 위에 있는 탄도체의 관계를 나타내며 어떤 실체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나타낸다. 중등교과서에서는 1개(3.1%), 고등교과서에서는 8개(9.4%)로 총 9개(7.7%)의 빈도이다.

둘째, 통제 의미는 다음과 같다.

- (52) a. We know that healthy oceans have a deep influence *over* our lives, and not just via seafood. (지학사/고등 공통영어)
b. At the same time, I felt a bodily pressure all *over* me, which came from his direction. (지학사/고등 영어 I)

(52a)는 탄도체(healthy oceans)가 지표(our lives)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의미와 (52b)에서는 탄도체(bodily pressure)가 지표(me)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탄도체가 지표보다 높은 곳에 있지만 지표의 범위 내에서 지표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중등

교과서에서는 0개(0%), 고등학교과서에서는 6개(7.1%)로 총 6개(5.1%)의 빈도이다.

셋째, 재귀 의미는 다음과 같다.

(53) I asked my father to drive me to the hospital, but he refused and turned *over* in his bed. (지학사/고등 공통영어)

재귀 의미는 일반적으로 90도의 원호로 넘어지므로 (53)에서 탄도체(he)의 처음 위치는 수직이며 마지막 위치는 수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탄도체는 곧 지표라 할 수 있다. 중등학교과서에서는 1개(3.1%), 고등학교과서에서는 4개(4.7%)로 총 5개(4.3%)의 빈도이다.

넷째, 전이 의미는 다음과 같다.

(54) The clerk handed *over* a letter addressed to "Mr. George D. Bryson, room 307." (천재/고등 영어Ⅱ)

(54)은 탄도체(a letter)가 한 지점으로 다른 지점으로 넘어가는 전이 의미를 나타낸다. 중등학교과서에서는 1개(3.1%), 고등학교과서에서는 2개(2.4%)로 총 3개(2.6%)의 빈도이다.

다섯째, 검사 의미는 다음과 같다.

(55) C. W. Tombaug was carefully going *over* photographs of the section of the sky where the new planet should have been.
(지학사/고등 영어Ⅱ)

(55)에서 탄도체(C. W. Tombaug)는 지표(photographs of the section of the sky)보다 물리적으로 위에 있고 그 근처에 있다. 따라서 이런 공간적 관계는 탄도체가 지표를 검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등교과서에서는 0개(0%), 고등교과서에서는 2개(2.4%)로 총 2개(1.7%)의 빈도이다.

여섯째, 반복 의미는 다음과 같다.

(56) a. Sports are full of things that are done *over* and *over*.

(지학사/고등 공통영어)

b. He drew rough outlines and sketches *over* and *over*.

(두산/고등 영어 I)

(56)는 재귀 의미를 반복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며, 이 의미의 *over*는 *again*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 또한, *over*의 중복사용이 반복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중등교과서에서는 0개(0%), 고등교과서에서는 2개(2.4%)로 총 2개(1.7%)의 빈도이다.

마지막으로, 덮기 의미는 다음과 같다.

(57) He said the storm, which veiled the sky *over* the Korean peninsular, would die down *over* the weekend. (천재/고등 영어 II)

(57)의 'the sky over the Korean peninsular'에서 탄도체(the sky)가 지표(the Korean peninsular)의 위를 덮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중등교과서에서는 0개(0%), 고등교과서에서는 1개(3.2%)로 총 1개(1.2%)의 빈도이다.

전체적으로, 전치사 over의 출현빈도가 두산(김)에서는 36개, 지학사에서
는 37개 그리고 천재교과서에서는 44개 총 117개로 나타났다. 원칙적 다의
성 모형에 따라 전치사 over의 의미를 15가지로 분류했지만, 교과서 상에
나타난 의미는 12가지 정도였고, 나타난 의미들이 반영된 예문도 원형장면,
시간, 건너편 의미를 제외하고는 매우 미미하였다.

두산(김)의 경우 전치사 over의 의미가 원형 의미, 시간 의미 및 건너편
의미에만 치중되어 있으나. 천재 및 지학사교과서의 경우 전치사 over의
개수 및 그 의미가 두산(김)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 5 장 결론

지금까지 전치사 over의 원형 의미와 개별 의미를 살펴보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전치사 over의 의미들이 어떤 빈도수로 또한 어떻게 쓰였는지 조사해보았다. 이제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동음성 접근법, 다의성 접근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한 후, Tyler & Evans(2003)의 원칙적 다의성 모형을 소개한 다음, 이 모형에 입각해서 다의성 오류를 해결하고 개별 의미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Tyler & Evans(2003)의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 따라 전치사 over의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를 분류하였다. over의 의미망 조직에는 원형장면을 포함해서 모두 열다섯 개의 개별 의미가 들어있으며, 개별 의미들은 원칙적인 방식으로 원형 장면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즉, 전치사 over의 여러 의미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over는 다의적이고, over의 형태와 의미 사이에 일대다 관계가 상당히 체계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제 4장에서는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 근거하여 두산(김), 지학사 및 천재 교과서에 나타난 전치사 over의 예문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등교과서에서는 총 32개의 over를 포함한 예문을 발견 할 수 있으며, 원형장면 13개(40.6%), 건너편 7개(21.9%) 및 시간 의미가 5개(15.6%) 총 25개(77.1%)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개별 의미는 완료 및 주의초점 의미가 각각 2개(6.3%) 그리고 전이, 더 많음, 재귀 의미가 각각 1개(3.1%) 총 7개(21.9%)로 전치사 over의 개별 의미들은 골고루 나

타나지 못하고 매우 낮은 빈도로 쓰였다.

고등교과서에서 나타난 over 총 85개의 예문 중에서, 시간 23개(27.0%), 원형장면 17개(20.0%) 및 건너편 의미 13개(15.2%)의 3가지 의미가 총 53개(62.2%)로 중등교과서에 비해 다소 낮아지고, 개별 의미는 더 많음 8개(9.4%), 통제 6개(7.1%), 재귀 4개(4.7%), 주의초점 4개(4.7%), 완료 3개(3.5%) 및 전이, 검사, 반복 의미가 각각 2개(2.4%) 그리고 덮기 의미가 1개(1.2%) 총 32개로 중등교과서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났다.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 따라 전치사 over의 의미를 15가지로 분류했지만, 교과서 상에 나타난 의미는 12가지 정도였고, 나타난 예문도 원형 장면, 시간, 건너편 의미를 제외하고는 개별 의미들이 골고루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상위-초월, 과도-상위 및 선호 의미는 중등 및 고등교과서 어느 한 군데에서도 나타나지 않아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전치사 over의 원형 의미와 다양한 확장 의미들을 교과서를 통해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전치사를 더 쉽게 접근하고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참 고 문 헌

- 강낙중. 1995. Over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1, 107-140.
- 강승임. 2002. 『실제 자료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OVER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환. 1995. Over의 의미 분석 비교. 『동아영어영문학』 11, 237-258.
- 김영원. 2002. 『영어전치사 above, on, over의 인지론적 의미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종도. 2002. 인지문법의 디딤돌. 서울: 박이정.
- 박계형. 2001. 『영어전치사 across, over, through의 인지적 의미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박선애. 1999. 『영어 Over의 의미분석: 인지언어학적 접근』.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신명석. 1989. 『전치사 Over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소순무. 1987. 『Over의 의미와 용법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정교. 1994. 『Over 연구: 원형의미론과 도식적 방법』.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지연. 2001. 『전치사 OVER의 인지적 의미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기동. 1998. 『영어전치사의 의미와 용법』. 서울: 교문사.
- _____. 2000. 『인지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 _____. 2001. 『영어전치사 연구』. 서울: 교문사.

- 이도환. 2004. 『원칙적 다의성 모형에 근거한 OVER의 의미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임지룡. 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 조미성. 2005. 『전치사 Over의 인지적 의미 분석 및 지도 방안』.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Brugman, C. M. 1981. *The Story of 'over': Polysemy, Semantics, and the Structure of the Lexicon*. M. A.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1995. London: HarperCollins Publishers.
- Dewell, R. 1994. Over again: image-schema transformations in semantic analysis. *Cognitive Linguistics*, 5(4): 351-380.
-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1992. Harlow: Longman.
- Jackendoff, R. 1997. *The Architecture of the Language Faculty*. Cambridge, MA: MIT Press.
- Lakoff, George.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김종도(역). 1999a. 『인지문법의 토대 I』. 서울: 박이정.)
- _____. 1991a. *Concept, Image, and Symbol*. Berlin: Mouton de Gruyter.
- _____. 1991b.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I.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Sandra, D. 1998. What linguists can and can't tell us about the mind: a

- reply to Croft. *Cognitive Linguistics*, 9(4): 361-378.
- Tyler, A. and V. Evans. 2003. *The Semantics of English Prepositions: Spatial Scenes, Embodied Meaning and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동환, 김주식(역). 2004. 『영어전치사의 의미론: 인지언어학적 접근』. 서울: 박이정.)
- _____. 2001. Reconsidering Prepositional Polysemy Networks: the Case of over. *Language*. 77(4), 724-765.
- _____. 2004. *Applying Cognitive Linguistics to Pedagogical Grammar: The Case of Over*. In Achard, M. and S. Niemeier. (eds.) *Cognitive Linguistics,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Foreign Language Teaching*, 257-280. Berlin: Mouton de Gruyter.
- Talyer, J. R. 1995.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Cognitive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임지룡, 김동환(역). 2005. 『인지문법』. 한국문화사)
- Quirk, R. and S. Greenbaum. 1973. *A University Grammar of English*. Harlow: Longman.